

▣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빙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자상설교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1 - 17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1.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준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은 그를 놓고 키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나로 인하여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근심거리가 된다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감을 받고 존경받는 청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홀륭하다고 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근심에 젖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청년에게는 비전도 없고 바른 국가관도, 인생관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참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죽은 생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영혼의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물질이 풍족해도 다시 회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합니까?

나인성 과부에게는 이들이 큰 위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별과 같이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는 우리들의 희망이며 위로이고, 이 민족의 미래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인성 과부와 같이 슬픔에 참기게 됩니다.

죽은 자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며 산다면 부모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더욱 슬픈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간다고 해도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안타깝기 그지 없었겠는 테 하물며 지옥으로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2. 이 같은 슬픔을 씻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하러 가는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라면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보셨습니다. 장례행렬에서 가장 슬퍼하는 자를 찾아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며 그녀의 슬픈 상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

▣ 2003년도 표어

생명의 성령이며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2. 암마누엘의 삶을 살자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으므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신 후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관을 들고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기적은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코나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곧 죽을 사람들이요 영원히 멀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요5:21).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다시 살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다시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마치 살아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청년에게는 새 생명과, 새 느낌과, 새 사랑과 새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3.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청년은 생명을 얻은 후 일어나 앓기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을 친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산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15절).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신 후 선교사가 되라거나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내시어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형제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16-17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신청 접수 시작

주민의 평균 연령이 70 세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는 농어촌의 환경과 더불어 농어촌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교회는 96년부터 농어촌 미자립 교회 지원운동을 일으키며, 2001년에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실시해 오면서

2003년도에도 많은 성도들의 협력으로 116개 교회와 결연을 맺고 지원했다. 교회는 2004년에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 일에 동참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한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주부터 영상 선교 시작된다

기독교 TV – 케이블 CH 42(금 오후 7시)
기독교 방송 위성TV – CH 162(수 오전 7시)

지난 번 순례자를 통해 이종운 목사의 설교를 녹화하여 영상선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기독교 TV와 기독교 방송 위성TV 등 2개사와 협의의를 거쳐 금주부터 영상선교방송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기로 확정하였다.

기독교 TV – 케이블 CH 42(금 오후 7시) 기독교 방송 위성TV – CH 162(수 오전 7시)로 각각 방송을 하게 된다. 복음이 갈급한 이들을 위한 영상 선교에 성도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

2004년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시작되다

11월 12일(수) 수요 1부 예배 후 · 11월 12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 11월 16일(주) 찬양예배 후

2004년 한 해 동안 서리집사로 임명받아 교구를 비롯한 교회 각 부서에서 일꾼으로 봉사할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일정이 발표되었다. 를 받은 분은 11월12일(수) 수요 1부, 2부 예배 후, 11월16일(주) 찬양예배 후 갖는 교육 및 면담 일정에 참석하여 교육과 이여지는 면담을 한번만 받으면 되며 장소는 602호실이다.

서울교회 서리집사로 처음 임명받게 되는 성도들 중 통지

2003 사명자 대회 24시간 연속 기도표 [11월 3일 ~ 11월 8일]

구분	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1. 3(월) 12교구	김희정 김상철 이양철	김희정 김상철 이양철	김희정 김상철 이양철	김희정 왕경래 이제원	김희정 왕경래 이제원				전원순 송성식 서경애 강민희	전원순 이인순 주희인	위성남 김연정	길연정 위정남 13-5 국산옥 이미승 원복순	문혜진	김종자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신정순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윤봉준	윤봉준	김희진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서경애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김숙자 주경자 신현이
11. 4(화) 13교구	서명철 하영수 황정우	서명철 하영수 황정우	서명철 하영수 황정우	서명철 노승상 박정선	서명철 노승상 박정선				김명숙 주희인	한혜경 승인숙	박진희	문윤숙	오가연	권혜옥 장정옥	안옥녀	나금주	이금순	손성실 최정옥 13-11	정경자 이순희 윤봉준	이미승 윤봉준	이애덕	서경애 임인선	서경애 이미승	김영식		
11. 5(수) 13교구	박금실 서문석 허희철	박금실 서문석 허희철	박금실 서문석 허희철	박금실 박두호 조정식	박금실 박두호 조정식				원복순 최동애 방계운 최무순 김정의 허현숙 이남복 이선희 이선희 주희인	전인화 최난수 최영순 김정의 이윤희 이유진 이은자 이영애	최인수 윤금자 조신자 이온자 김인화	정유선 윤금자 조신자 이온자 김인화	수요1부 예배	정경자 주의현 선경자 한정아 이영애	이신정 김영식 신정순 김인숙 오종례	김종자 이자혁 최금래 노순례 김지은	김숙자 홍승자 최금래 노순례 권화순	박수웅 김영숙 조미환 노순례 권화순	박수웅 김영숙 김천진 김수호	정경자 김천진 김수호	수요2부 예배	이동만 홍충배 민충면	유근중 서경애 최홍렬 유근중 유관모	서경애 최홍렬 유관모	전기섭 최규조	
11. 6(목) 14교구	손재영 민순구 박두영	손재영 민순구 박두영	손재영 민순구 박두영	손재영 윤찬오 오영철	손재영 윤찬오 오영철				강민희	주희인 유성임 14-6	김인순	박종숙 14-7 김종순	전용순 김계순 김효희	김종자 우경자 정미연	우경자 정미연 박수웅	이명순 14-11 14-12	윤용미	김명심 윤봉준	윤봉준	김희진 윤봉준	서경애 윤봉준	서경애 윤봉준	김효희			
11. 7(금) 17,8교구	이성득 이완형 김영주	이성득 이완형 김영주	이성득 이완형 김영주	이성득 임훈규 김영택	이성득 임훈규 김영택				박두호 서경애 강민희	유순섭 이상호 주희인	이영기 이영숙 최리옥	이부자 임윤자 임순자 권진문	정경자 함승연 김정운	이동선 박영숙	진경옥 진경옥	김영식 여현진	한성옥	김치순 함은희	한춘홍 윤봉준	신정순 윤운식 김재성 함은희	금요기도회	김재진 이태훈 이상호	서경애 김재진 김수경	서경애 김재진 김수경		
11. 8(토) 6교구	이규정 이번생 이태상	이규정 이번생 이태상	이규정 이번생 이태상	이규정 홍성주 최용걸	이규정 홍성주 최용걸				윤숙희	윤숙희	김계순 여동옥	김경옥 김정란 김복승	황금희	정경자 유율상 김효순 서명조	최일준	윤숙희 김성운 최일준	박정인 김병용 성수영 정정숙	박정인 성수영 이영숙 정정숙	박정인 성수영 이학주 송인준	대, 청부 이학주 송인준	대, 청부 이학주 송인준	대, 청부 이학주 송인준	대, 청부 이학주 송인준			

은빛찬양대 악수수련회를 다녀와서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원복순 권사(2교구)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시편 71:14)

주일 날 우리 은빛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할독하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감사가 넘칩니다. 길어가는 가을 하늘과 두둥실 떠다니는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녀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즐거워하시는 은빛찬양대원들.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사랑을 오늘은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작은 입술로 감사 찬송 드립니다.

교회에서 사명자 대회 기도를 10시에 마치고 난 후 버스 2대로 용문산으로 향했습니다. 12시쯤 도착해서 구비에 담기는 산골음식으로 겸식식사를 하니 우리들의 입이 즐거워 친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식사 후에 찬양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팀, 일마누엘 팀, 호산나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쟁쟁한 대

장을 세워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3년간 친양대를하면서 익하고 간직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맹렬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3팀 모두가 99점을 받아 높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경연대회를 마치고 사진촬영도 하였습니다.

돌아오기 전 함께 서울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오늘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경쟁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대회에도 열심을 내어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곁에서 뵈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우리들은 나의 갈 길, 의로운 길 다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와 함께 우리 은빛 찬양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목회자신 학세 미나를 참석 하며...

전리의 울림이 있는 교회



김인호 목사
(교회개신연구원 동문)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가 좋았던 때 들리는 소리는 운동 중병이 걸렸다는 소리요 못살겠다는 소리요 죄 짓는 소리뿐입니다. 하루살기가 겁이 납니다. 자고나면 들리는 소리는 부경을 거칠렸다는 소리요 다투는 소리요 자살했다는 소리뿐입니다.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메트고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말라버렸습니다.

맑은 샘, 새 하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립습니다. 정겨운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고향들녘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종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추수한 곡식 단을 끌어안고 합박미소를 짓는 농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 진솔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맑고 깨끗한 종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좋은 울려야 합니

다. 아름답게 울려야 합니다. 예혹적으로 울려야 합니다. 울지 않는 좋은 종이 아닙니다.

전리의 추가 십령을 두드려 아름답게 울리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축를 맛아 볼처럼 바람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 시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향기가 바람처럼 멀리멀리 울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리의 울림이, 이 생명의 울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소망의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을 감격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감격 그 감격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기뻐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전리와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가 이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교회!

그렇습니다. 위기와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두움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서울교회. 그리고 목회자 신학세미

사명자 대회-24시간 연속 기도

이 늙은 여종은...

나옥녀 권사(11교구)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에 그토록 몸부림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과 딸들이 살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사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복음의 국가로 세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새 잊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며 음부로 내려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늙은 여종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행자지하며 허탄한 삶을 살았나이다.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서울교회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기까지 이 늙은 여종은 무릎이 닳도록 뼈를 갈아 기도하겠나이다.

나! 여기 친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현장에서 지치있는 목회자들에게 월요일마다 진절한 언어와 아름다운 짐손으로 고운 한복을 입고 반갑게 맞아주는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답게 맞아주시는 장로님들, 따스한 차를 준비해 놓을 때 평안하게 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늘 정성을 담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접수와 안내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늘 주옥같은 시편강해로 목회에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전리를 맞보게 하시는 이종윤 목사님.

말라버린 인간성, 경시되는 인권, 무너져버린 윤리와 도덕성,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기 매혹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죄악의 밤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과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새 하늘의 종소리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깔 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오염된 세상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께 메시아를 올해의 성탄선물로



임상현 장로
(메시아 준비위원회)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날씨는 맑지만 거리에는
성탄캐롤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바쁘게 하루 일을 마감한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웃끼리, 다락방 식구들끼리 같이 승용차나 자
하철을 이용하여 올림픽 공원내에 있는 올림픽 홀을 향하
게 됩니다.

각 교회에서 몰려드는 성도들로 개관 최초의 올림픽 홀
은 떠들썩하게 되고 미리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오랜만에
올림픽 공원을 한바퀴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별씨 홀 내 앞좌석에는 낮은 곳으로 암하진 메시아 탄
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초청된 우리의 많은 어
려운 이웃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각 교회의 성도들은 서
로 인사를 나누며 잠시 후 연주될 메시아 합창을 가쁜 숨소
리를 내쉬며 기대 속에 기다립니다.

마침내 저녁 7시 준비위원회의 간단한 인사말과 주관
교회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개회기도가 있은 직후
곧바로 제36회 메시아 연합 합창의 서곡이 무대에 올려지

고 동양 최초로 연주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
추어 40여개 가까운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대형 합창단의
메시아 찬양이 새로이 개관된 올림픽 홀을 크게 울리게 됩니다. 홀 내에는 2000여명의 서울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3000명 이상의 각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감격과 흥분 속에 탄생과 수난과 부활의 메시아를 성탄선
물로 받게 되며 중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 정
도 연주회가 계속되지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활
황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마지막 찬양인 '죽임 당하신
어린양'의 아멘 합창이 연거푸 울려 퍼지면서 모든 연주가 끝나게 됩니다.

삼삼오오 짹을 지어 올림픽 홀을 빠져나
가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
시아의 생애를 다시 생각하며 내년에도
그 메시아를 닮아 열심히 희생과 섬김
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센 다짐을 하
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게 됩니다.



이번 메시아 연합찬양제에 여러 성도들을 초청
하면서 참석하는 여러 성도들께 메시아합창 입장권
을 올해의 성탄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관교회로서 이번 행사를 교
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성탄축하음악
예배로 정한 바 있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재정지원
을 받아 충분한 입장권을 확보한 후 참석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 열매 맺은 분들과 함께 이
번 메시아 합창을 같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교구와 다탁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전
도대상자 초청용 등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만큼의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지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은 다른 성도들께 더 많은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하게 빈 좌석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참
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교회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준비위원회-

2003 사명자 대회 태신자 명단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홍성태 김성일 정인수 정세석 정인호 김은하 박소혜 박진호
이종태 박영숙 이해진 이지연 이미경 김하연 황규호 최윤정
황선우 황진우 박기관 오정은 박현지 박재한 김우승 백복수
신수현 김진기 홍기일 이상준 박옥례 윤점순 (다음 주 계속)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일(목) 대치지역 교회 연합회를 소집한다.
- 의료선교회는 지난 28일 총회를 열고 회장에 하인선 집사, 부회장
에 안인호 집사, 의과 대표- 주영광 성도, 한의과 대표- 김영주 성
도, 치의과 대표- 김태수 성도, 약사과 대표- 김정임 집사를 선임
하였다.
- 수상: 손병석 집사(3교구) 문화관광부 장관상(자연사 박물관감리)
- 사무실 이전: 주동재 집사(13교구) (주)이마을 방배동 1009-1
전화: 1588-3166
- 이사: 홍유식 손명애 집사(13교구) 송파동 찰리스빌딩 6층
신동현 김희진 집사(7교구) 한남동 협대홈타운 103-204
- 금주의식사: 김시환 집사, 김정란 집사 가정(부친 장례를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케이블 CH 42 금 오후 7시
- 기독교 방송 위성 TV CH 162 수 오전 7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성수대교

영동대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 복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